

# 정유산업과 플러스섬 게임

金 乾 洽  
(本誌 편집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보고 한가지 특징을 이야기한다. 즉 우리나라에는 아이를 키우면서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것 하지 말아라, 저것 하지 말아라 하면서 여러가지 행동에 제약을 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어릴적에 아이들을 꼼짝 못하게 하니 자연스럽게 독창성과 창의성이 결여되어 결국은 소극적으로 옷사람 말이나 잘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늘 한국사람들을 평하면서 독창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 이처럼 어릴적부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 경제에서도 정부가 기업으로 하여금 할 수 없거나 제한하는 것이 너무 많아 궁극적으로 기업활동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독창성까지 저해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각종 행정규제에 대해 정부는 규제완화가 국민생활과 해당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그러나 과거에는 규제의 명분이 있었다 해도 민간부문의 양적 확대와 질적 변화에 따라 각종여건이 판이하게 다른 현시점에서 규제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과거의 관행에 따라 규제가 계속돼온 부문이 없지 않다.

일례로 주유소 거리제한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서울지역의 주유소 거리제한을 종전 1km에서 700미터로 완화했으나, 자동차대수가 1백만대를 돌파한 현시점에서 주유소가 태부족하여 자가용 운전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요사이 자동차가 급증함에 따라 휘발유를 넣기가 힘든 것을 보고 주유소사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부에서 소방법에 의한 안전규칙을 정하고, 새로운 주유소가 이를 충족시켰는가를 조사할 필요는 있어도 주유소사업 자체를 허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허가사항에 대해 정부는 그대로 두었을 경우에 주유소가 너무 많아져서 과당경쟁이 되어 모두 실패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는 학교앞의 문방

“  
**현재와 같이 정유업계의 이익개념이 제로섬 게임의 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하에서는 어느 한 회사의 이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치열한 시장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

구도 너무 많이 생기면 장사가 안되니 허가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오히려 기업간의 경쟁을 제한, 산업 자체의 경쟁을 뒤떨어지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면에서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정부가 현행 7백미터의 주유소 거리제한을 추가완화키로 한 것은 지극히 타당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정부는 주유소의 폴사인제도의 확대등 유통구조의 개선도 아울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같은 유통구조의 개편은 필연적으로 정유사간의 시장경쟁을 격화시킬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시장조건과 가격구조하에서는 정유사간의 건전한 선의의 경쟁을 어렵게 하고 심지어는 泥田鬪狗의 현상도 가능케 하고 있다.

현행 유가관리제도하에서는 정유5사의 총이윤이 정유부문 총자기자본에 대하여 세후 9.7%로 통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윤통제는 국내 정유산업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1983년부터 1988년까지의 기간동안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을 투자위험이 정유산업과 유사한 산업들에 대하여 비교해 보면, 정유사업은 7.3%에 불과한데 비해 화학산업은 8.7%, 가전제품제조업은 13%, 그리고 자동차산업은 13.5%에 이르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국내 공기업의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이 8.2%이고, 에너지관련산업의 경우에는 8.8%로서 정유산업의 7.3%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자기자본이익률은 적정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적정 자기자본이익률은 적절한 社內유보를 위한 제원, 투자된 자본에 대한

신뢰를 유지시켜 나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적절한 배당, 그리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재투자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1988년말 기준으로 1988년도 법정적립금을 기준으로 한 사내유보, 배당률 15%, 그리고 정제시설 증설 및 중질유분해시설에 대한 투자를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자기자본이익률의 적정수준은 현행 세후 9.7%를 크게 상회하는 세후 17%가 된다.

이와같이 엄격한 이익률 통제는 국내 석유산업을 구조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투자 수익률이 적정수준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에서 통제되는 현행 유가관리제도하에서는 시설투자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향후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경질화·저유황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수요구조 변화에 대응해서 국내 석유산업은 원유정제시설을 확대하고, 중질유분해시설, 탈황시설 및 제반환경오염방지 시설, 그리고 제품다양화를 위한 시설의 신설 내지는 증설이 요구된다. 또한 세계석유시장은 구조적으로 불안하며, 이 구조적인 시장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내외 유전개발사업의 참여를 통한 수직적 통합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사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높은 위험을 수반하고 있어서 지금과 같이 정유사의 이윤이 과도하게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들 투자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 이 결과 국내적으로는 변화하는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공급체계의 구축이 어려워져서 수급불균형이 야기될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세계

“

**게임참가자들은 제로섬 게임 구조하에서의 비정상적인 경쟁에서 탈피하여 더 큰 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 파이의 크기를 키워서 각자의 배분몹을 확대해 나가는 플러스섬 게임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

석유시장의 불안에 대하여 국내시장이 과도하게 노출되어진다. 이는 곧 석유의 공급체계를 약화시켜 최종소비자보호에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내 정유5사의 이윤을 전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이 규제근거가 되는 정유5사의 총자기가본이 일정한 경우에는 총이윤 역시 일정하게 된다. 따라서 어느 한 정유사의 이윤증가는 다른 정유사의 이윤감소를 초래하는 이른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구조로 되어 있어 이는 정유사간의 건전한 선의의 경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즉 어느 한 회사의 이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는 손해를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생사를 걸고 泥田鬪狗의 치열한 시장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제로섬 게임 구조하에서의 시장경쟁은 상향적 비용경쟁이 아니라, 하향적 비용경쟁이라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정유사간의 상호관계로 비정상적인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시장질서만 교란될 뿐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플러스가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유산업은 제로섬 게임이 적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場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정유업계의 이익개념을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에서 플러스섬 게임(Plus-sum Game)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플러스섬 게임은 제로섬 게임의 해결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개념으로서 게임참가자(경쟁사)의 협력과 양보를 통하여 파이의 크기를 극대화한 후 각자의 배분몹을 보다 크게 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현실사회에서 플러스섬 게임의 성립은 매우 어려우며, 제로섬

게임에서 플러스섬 게임으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의 조정 및 사후보상체계에 대한 믿음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뿐 아니라, 유효한 지도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석유의 원활한 공급은 시장의 자연스런 질서를 바탕으로 시장참여자들이 지혜와 창의력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가능한 이익실현의 기회를 탐색하고,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할 때에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시장참여자들이 도덕적 규범을 바탕으로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시장의 자연스런 질서가 유지되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가격정책의 목표를 「저렴한 가격」에서 「적당한 가격」으로 바꾸어 정유업계의 이익을 「최소이익」에서 「적정이익」의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 게임참가자(경쟁사)들도 각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더 큰 이익을 위해 서로 협조하여 파이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슬기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정유산업을 둘러싼 이상기류는 정유업계의 플러스섬 게임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케 해주고 있다.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現代, 三星등의 신규참입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며, 또 정유사의 주유소 소유·경영을 금지하고 있는 지난 1981년 3·14조정명령의 허점을 틈타 대기업들이 주유소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시한이 올해말로 임박함에 따라 석유시장 개방을 노린 외국 석유회사들이 국내 석유유통시장 진출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로섬 게임과 플러스섬 게임중 정유업계가 선택할 길은 너무나 자명하다 하겠다.♣